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창조경제산업연구부 김시백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31)
- 담당실장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  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6년 12월 15일(목) 12시부터

## 국가식품클러스터 4.4만명 고용 창출 기대

전북연구원 '국가식품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제언'

6대 기업지원시설 입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본격화  
사업 완료 시점에는 전라북도 GRDP의 3.7% 담당 예상  
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3가지 추진방향 제시

- 2016년 12월 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이 준공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, 향후 지역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「식품산업 경쟁력의 원천, 국가식품클러스터 : 도약과 응집을 위한 제언」에 따르면, 2016년 12월 현재 국내외 20개 기업이 분양(임대 포함)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5개 기업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으로 향후 2단계 사업까지 완료시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최대 4.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라북도 GRDP의 3.7%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슈브리핑에서는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논의되었던 산업계의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, '한·중 공동 협력형 식품클러스터 구축', '공동물류센터 건립', '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'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.

- 한·중 공동 협력형 식품클러스터는 공간적,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으로 민간 위주의 교류 협력을 우선 추진하여 교류를 활성화한 이후 공동연구소 설립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.
  - 공동물류센터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, 기업 자체적인 물류체계를 지양하고 입주기업 공동의 저비용·고효율 물류체계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.
  - 입주 예정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,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무역상사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적화해야 한다.
-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.
- 첫째, 2단계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'건강' 가치를 추구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기능성 소재 신제품의 각축장으로 조성하고 중국·일본 식품시장을 겨냥한 동북아시아 식품산업 허브로 자리잡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독자적인 국제식품 클러스터 포럼 개최 및 세계식품엑스포를 유치해야 한다.
  - 둘째, 기업유치 전략으로서, 6대 기업지원시설과 함께 소스산업화센터 및 한국발효식품연구소 설립 등으로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식품과 문화를 병행하는 명품식품도시를 조성하고 명문 식품연합대학 구축으로 전문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.
  - 셋째, 농식품 원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유통센터(APC)가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사업 추진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, '생산자 네트워크'-'R&D 네트워크'-'식품기업 네트워크'의 상호 연계 강화로 원료조달, 식품기업, R&D 수요 중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.